

무용 읽기 학습의 의미

*
황 정 옥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무용 미디어 환경
	III. 무용읽기 교육의 접근 시스템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강사, 부산무용교육원 연구원

논문투고일 : 2023.02.09

논문심사일 : 2023.02.11

게재확정일 : 2023.03.13

The meaning of learning dance literacy

Hwang, Jeong-ok · Kyungso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dance literacy education amid the changes of media environment in which dance is shared and dance learning. In the conditions of education changed into a multimedia environment, this researcher has considered through dance literacy the functions of dance learning that develops intellectual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world, reflect on one's life, and contribute to new knowledge, and the contents are as follows.

In this complicated age that demands intellectual ability and wisdom rather than knowledge generalized through abstract thinking, the roles of learning how to read are to find out how to think and what to do. In this context, dance literacy is one of the contemporary reading education methods as dance learning that develops critical thinking and reflective thinking skills.

Acquiring dance literacy goes beyond simply reading text and develops problem-solving ability to explore the truth of the world we are facing as the representative knowledge of academic and social systems produced through historical and cultural orbits.

Dance literacy is expressed as a symbol (sign) of dance. It is expressed then as reading. Acquiring dance literacy which explores, infers, and expresses data is accompanied by critical thinking to understand, speculated on, and dance the changed times.

Acquiring dance literacy allows one to have intellectual modesty as dance is accepted as a part of life and an environment (calmness) and one reflects on what humanity should be oriented to (courage) through dance.

<key words> dance learning, dance literacy, representative knowledge, cognitive activities,
learning how to read

<주요어> 무용학습, 무용읽기, 표상지식, 인지활동, 읽기학습

인류는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표상 양식을 형성하고 의사전달과 소통을 거치면서 수정을 거듭해 왔다.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의 발달 덕분에 탐색과 수정 과정은 시·공간을 넘어 확장될 수 있었다. 지식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심상이나 모형을 의미하는 표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무용은 행동 양식으로 지식을 계승해 왔다. 감각체인 몸에 새겨진 인류의 자산은 문화리터러시로 우리의 삶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 대상인 무용읽기는 인류가 생성한 지식의 총체적 인지로 이해될 수 있다.

실세계와 가상세계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맞이해 학교교육에서의 리터러시 교육은 교수자의 직접 교수법과 학습자의 표준화된 능력이 필요하고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쓰기체계(writing system, the era of writing)에서의 학습은 객관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이전에는 말소리에 더해 물리적, 시간적, 공간적 양식을 섞어서 서로 의미를 주고받던 복합양식 사회(multimodal society)였던 모어시대(the era of first language)가 있었다. 문자와 언어로 읽고, 쓰기를 강조했던 시대적 배경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위한 매체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으며 오늘 날의 다양한 기술 개발은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여과 없이 증폭시키고 있다.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은 멀티미디어 환경에 우리를 위치시켰으며 불안정한 과잉 정보로 인해 진리 탐구로서의 학문뿐 아니라 학습에서의 지식 생성 또한 큰 혼선을 겪고 있다. 객관적 사실이자 진리가 부재하다는 당위성을 인식하고 동시대 무용읽기 학습은 스스로 발견하고 이해하며 행동하는 능력을 계발하는데 목적을 두게 되었다.

무용의 역사는 동굴, 야외 공간, 무대로 공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꺾는 가운데 소통을 위한 매체를 달리 적용했으며 의사전달 방식은 무용 형식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지식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따라 무용을 이해하는 방법 또한 변화해 왔다. 쓰기체계에서의 무용의 이해는 감상과 비평이었고 오늘날에는 무용읽기로 무용학습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무용이 공유되는 미디어 환경과 무용학습의 변화 속에서 무용읽기 교육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변화한 교육 환경에서 무용으로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새로운 지식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계발하는 학습 기능을 무용읽기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II / 무용 미디어 환경

인류는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기억(memory)을 끊임없이 확장(extend)했다. 이와 같은 ‘기억의 외주화¹⁾’는 필요할 때 저장된 정보를 쉽게 찾아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는 주장의 시기(McLuhan, H., 1964년)와 맞물려 1965년 등장한 하이퍼 텍스트-하이퍼 미디어 개념은 지식과 기억의 무한한 확장을 도모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단일 저장 장치에 국한되었던 하이퍼 텍스트는 초월한다는 의미만큼 특정한 공간(장치)에 얽매이지 않고 가상 세계에 널리 확산되었고 1990년대의 월드와이드웹(www)시대에 이어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조병영(2022)은 디지털, 인터넷, 가상현실, 메타 버스와 같은 기술, 인터넷 신문, 방송, 웹진과 같은 매체, 문자, 음성, 영상, 그래픽, 제스처와 같은 표현 양식 등 다양한 기술이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본다.

어떠한 특정한 기술, 매체, 표현 양식이 하나의 기준으로 표준화되거나 통일되기 어려운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해 예술 행위와 교수학습에 미디어 기술을 도입하거나,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교육적 관점에서 어떤 가치와 기능으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양자적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교육계에 불어닥친 주요변화에는 문해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만 있었던게 아니다...(중략)...줄리 코이로Julie Coiro와 도널드 류Donald Leu를 포함한 새로운 문해력의 주창자들은 디지털 읽기와 인터넷은 물론 정보통신 기술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문해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Baron, N. S., 2021, 전병근 역, 2023:50).²⁾

일반적으로 지식³⁾은 경험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며 진리(진실)라고 받아들이는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다. 따라서 학습에서의 지식은 이와 같은 판단이 무엇에 의해 결정지어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화·환경에 의해 지식이 구성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¹⁾ Rumsey, A.(2016)의 용어

²⁾ Baron, N. S.(2021)은 “문해력이 기본적으로 읽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였으나 1970년대부터 “사회적 실천의 산물로 보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문해력이라는 단일 개념 대신 ‘다중문해력(multiliteracies)’이라는 더욱 확장된 개념”(49)이 등장했다고 본다.

³⁾ Wikforss, A.(2020)는 지식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통해 지식은 경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구성물이라고 말한다.

특정한 상황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가를 표현(상징)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한다면 지식 또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즉, 어떤 의미를 구축하고자 하는지 행동 관찰이 필요하며 우리의 믿음(신뢰)이라고 하는 심리 상태를 동반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을 무엇을 알고 있는지와 어떤 방법을 수행 할 수 있는지로 구분지어 왔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knowledge that)는 이론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으로 책, 강연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되는 명제화 된 지식을 의미한다. 교육에서 결과로서의 지식으로 명명되는 이와 같은 지식은 계몽주의 이후 교육 질서에서 우위에 있는 지식 형태였다.

무용학습에서의 지식 또한 무엇을 알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 시기가 존재했으며 공연 무용이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던 시간은 인쇄술 발전의 시기와 맞물렸다. 무용은 무용 자체의 성격보다 무용을 언어로 환원한 내용에 의해 규정되었다. 언어로 점철된 보편적 지식 체계에서 비언어적 무용이 소통되기 위한 방법은 언어로 무용을 다시 기록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이미지로 소통되는 무용이 다시금 언어로 환원된 역사 덕분에 무용의 종류나 분류, 구성 체계가 주된 무용 연구의 대상이 되었고 창작과 감상이라는 이중적 구조로 고착⁴⁾ 되었으며 무용학습은 습득과 훈련의 방법으로 이행되었다.

무용에서의 미디어 환경은 동굴, 야외 공간, 무대, 그리고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무대라는 미디어 환경은 신분사회에서 체제 선전 기능으로 작용했으며, 산업혁명 이후에는 대량생산에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유일성과 독창성⁵⁾이 내재된 개별적 가치의 기능으로 안착했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옹호하고 설명하기 위한 역할로서의 무용은 모방과 기술 습득을 우선시 했기에 전문교육에서의 무용학습은 분류 된 무용 양식에 적합한 수행 능력(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⁶⁾을 개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유일성과 독창성을 필요로 하는 모던댄스 안무가들은 그들의 작품 세계를 현현할 수 있는 고유한 테크닉을 개발하고 전수하는 아카데미를 구축했다.

인류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취했던 방법(학습)은 자기 감각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말(전문가)을 통해 간접적으로 획득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이 모두에는 지식(학습)은 개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인류가 협력해 만든 창작물이라는 인식이 장착되어 있다. 이를 두고 Wikforss, A.(2020)는 “지식은 우리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해 온 인식적 노력이 누적된 결과물”이라한다.

4) 한혜리(2020:87), “무용 공유 공간으로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 참조.

5) 한혜리(2022:5-18), “무용 교과교육의 개념과 가치” 참조.

6) 또 다른 의미에서는 암묵적 지식으로도 불린다. 아울러, 무용에서는 절차적 지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지식이 인간의 구성물이라는 믿음은 구성주의 교육이 교육 체계에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논증의 기반이 되었다. 직접 경험함으로써 습득하는 이해의 정보들이 사실이며 우리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필요한가(진정성)라는 판단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얻게 되는 지식의 우월성은 점차 약화되었다.

지식이 형성되고 축적되기까지 학습에는 문화 정보 전달 단위인 meme이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 밈은 매체를 통해 훨씬 더 빨리, 많은 양의 정보를 확산하기 때문이다. 15세기에 등장한 인쇄물 발명과 20세기의 인터넷 발달이 우리의 삶과 문화를 잠식한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적 학습인 문화는 직접적인 모방뿐 아니라 의사 전달 매체의 발명에 의해 매체로 전달되고 전이되어 왔다. 무용은 사회적 행위이자 학습의 내용으로 그리고 방법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계승의 과정은 인류의 신념 체계(ideologie)의 운반 기능을 띄었다.

인쇄 매체 시대의 지식은 인쇄물과 강연을 통해 전문가⁷⁾에 의해 전파되었으나 오늘날 지식 학습은 특정한 분야의 한정적인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으며(대중 매체 등장 이후)대중은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노드node가 되어 지식을 생성하고 공유한다. 특히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개인의 다발적 관계 맺기가 가능해지면서 특정 양식의 무용과 또 다른 양식의 미디어, 무용의 관계 맺기가 이루어졌고 다수가 생성하는 무용과 지식 세계는 관계 맺는 주체들의 의도와 지향성에 따라 발생되고 연결되고 있다. 이때 생성된 의미는 퍼나르기의 행위로 인해 유기체처럼 진화하는 잠재성을 탑재한다.

무용읽기란 대상인 무용을 아는 것이고 그 ‘읽’이 논리성을 학문적 연구 방법을 통과한 것일 때, 진리 인식이 되고 비로소 대상인 무용을 이해하게 된다. 무용을 포함한 예술의 소통성은 소통의 방법 보다는 내용에 비중을 두고 연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변화하던 시기를 지나 다수, 대중의 힘이 증대되면서 내용과 방법의 간극이 밀착되어 갔고...(중략)...다양한 매체의 선택과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무용의 이해는 다각적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한혜리, 2013:230-231).

“특수한 능력이나 특수 분야의 학문적 지식에 의한 감상이나 비평보다 다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관계 지어지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혜리, 2013:231)한 무용읽기 학습은 무용을 통한 세상 읽기로 이해된다. 또한 무용읽기는 기호로서 의미(meaning)를 다루는 행위라 볼 수 있다.

7) “순전히 지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서로 다른 다양한 학문 분야의 발전과 분화 현상은 19세기 이후 지식의 축적량 증가에 대한 반응이다...(중략)...전문화 과정은 기술 용어나 직업별 전문 용어의 발달을 동반했다. 이는 집단 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동시에 외부인에게는 어렵게 들리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다”(Burke, P., 2015, 이상원 역, 2017:60~61) 전문화는 규칙 제정과 훈련 구성, 공동 표준 관리 등도 수반되며 학위를 통해 통제되기도 한다.

오늘 날 우리는 문화적 지침인 맘에 개인의 생각이 휘둘릴 것을 우려한다. 맘은 매체의 힘을 빌려 우리가 직접 모방하지 않아도 생각이 복제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디지털 세계는 우리의 의식을 유동적인 한계 상황으로 인도한다. 광활한 선택지에서 불안과 모호함이라는 두려움에 빠져 자칫 내집단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상 읽기로서의 무용읽기 학습은 이러한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보의 출처를 찾아나서는 동시대 리터러시 학습의 맥락과 유사한 전략을 구사한다. 그리고 공감⁸⁾의 확장을 학습경험으로 제안한다.

전자 미디어 시대에 무용에서 공감이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방식으로 몸의 공명을 단초로 하는 상상이다(한혜리, 2022:38).

개인과 문화의 차이를 보는 세상 읽기를 위해서는 관계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이때 의미는 대상에 대한 동기적 관련성⁹⁾을 뜻한다. 그것들이 정서와 행동에 어떠한 지배력을 가지는지 혹은 관계와 관점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는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감각 대상을 어떻게 감지할 것인가가 무용읽기 학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행위가 된다. 특정한 영역의 내용(content)을 아는 것 못지않게 그 영역이 작동하는 실제 즉, 함의를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무용읽기 학습인 것이다.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잠재력의 변화 혹은 발현으로 보거나 문화 체계에서 형성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교육의 의미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단위 혹은 지식을 시작점으로 하는 인지 과정에서 생성되며 감정과 대립되는 인지로서가 아닌 감각의 세계를 구체화하고 맥락화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⁸⁾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에서 세상을 보거나 그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는 다른 사람의 관점을 위하는 것이며 정서적 공감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감정적 반응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을 일컫는다(『뇌가 아니라 몸이다』, 『공감의 반경』등 참조). 장대익(2022)은 인지적 공감을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설명한다.

⁹⁾ 우리가 그것을 어떤 의도와 목적, 필요성으로 볼 것인가(의식의 지향성)의 문제와 관계된다.

III / 무용읽기 교육의 접근 시스템

흔히 동시대를 탈 진실(post-truth)¹⁰⁾ 시대라 한다. 이는 일반 지능(general intelligence)이 반드시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었다. Sternberg, R.는 “인간의 지능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삶에서 성공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면서, 분석, 창의, 현실 지능을 강조하며 현실 지능을 메타인지, 감성 지능(사회 지능), 암묵적 지식(문화 지능의 토대) 등으로 설명한다.

세계가 구성된 요소에 관한 인식의 총체로서의 지식 학습은 추상적 사고 논리를 동반하는 일반 지능을 넘어 우리가 맞게 되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각기 다른 문화 환경에서 비롯된 지식과 관념을 감각하며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시대 요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일반 지능이 인공 지능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목격하며 무분별하게 넘쳐나는 방대한 데이터(정보)가 지식 형성의 판단에 혼선을 초래하고 심리적, 인지적 편향¹¹⁾을 가속화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비판적 사고, 성찰적 사고, 지적 겸손함 등이 주요 학습 요소로 등장한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현재 상황에 안도하고 집단의 생존에 위협을 느끼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¹²⁾.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와 신뢰에 관한 인지적 감각이 요청된다.

정보를 처리하는 우리 뇌는 느리고, 차분하게 사유하는 시스템 2의 작동을 불편하게 여긴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직감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1에 비해 뇌의 가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feeling)은 주의 집중과 속도 조절이 필요하며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텍스트의 의미와 가치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판단에는 정보와 지식, 경험을 연결 짓고 해석하고 상상하는 인지 과정이 수반되며 이때 우리의 행동이 조정되고 알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평가하고 의미를 읽게 된다.

¹⁰⁾ 2016년 Oxford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다. “객관적 사실이 감정과 개인적 믿음에 대한 호소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덜 미치는 상황을 일컫는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의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호를 다루고 의미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실질적 문맹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존하는 시대를 의미한다(『읽는 인간』, 『지능의 함정』, 『진실의 조건』 참조).

¹¹⁾ 인지적 편향 중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확증 편향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견해에 대한 반대 증거들은 수 집하려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혐오나 경멸과 같은 이모데믹(emodemic)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한다(『공감의 반경』 참조).

¹²⁾ 장대익(2022)은 이를 부족 본능이라고 일컬었으며, Jost, J. & Banaji, M.(2022)은 체제 정당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은화한 불복종자』 참조).

무용 연구로서 읽기(literacy)에 관한 논의는 이전 시대와 달리 해석된다. 독자적 방식을 추구했던 공연 무용에서의 무용읽기는 무용의 형식이나 종류, 미적 가치, 구성 요소가 연구(인식)의 대상이었다면 동시대는 무용이 형성된 배경과 역사적·문화적 생성 체계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지식 세계와 삶의 영역에서의 효용성을 탐색 가치로 정한다. 읽기는 문식성 즉, 글을 읽고 해독하는 범위를 넘어 세계를 이해하는 경로로 텍스트를 다루는 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용은 특정한 한 영역으로 축소되기보다 타 학문과 동등하게 인류가 구성한 지식 세계에서 읽혀지고 활용(참여)되어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축적된 수많은 텍스트는 그 시대의 세계의 반영이자 표상(representation)이며 무용읽기는 표상 지식을 몸으로 체현하는 감각 인지 활동이다. 따라서 무용학습에서 읽기는 이해와 공감, 식별과 추론 등 자신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인지 과정을 포괄한다. 학습자의 인지적 역량을 필요로 하는 무용읽기 학습은 이와 같은 능력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다.

생각의 내용은 생각이 대상을(생각하는 놈에게 대상이 무엇으로 또는 어떠한가 나타남) 다면, 대상을 그 무엇 또는 그 어떠한(으로서) 다루는 방식이다...(중략)...당신이 장면을 어떻게 떠올리는가는 당신의 상상력의 소관이며, 당신의 상상하기는 당신의 생각하기의 일부다. 상상력으로 무언가를 그리기는 생각을 붙잡기 위한 방식이다. 즉 생각하기의 한 방식이다(Gabriel, M., 2018, 전대호 역, 2021:53~ 57).

생각은 일정한 형태(form, 정신 모형)를 지니는데 무용읽기에서 다루어지는 표상 지식 또한 생각하기의 결과로 무용읽기의 감각자료가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는 생각이라는 행위에는 생각하기와 생각의 표현 사이의 되먹임(feedback)이 존재한다. 우리는 특정한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무언가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용읽기 학습은 단순히 텍스트를 해독(reading)하는 기능을 넘어 역사적, 문화적 궤도에서 생성된 학문과 사회 체제의 부산물을 자료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진리를 탐색하는 문제 해결력을 개발한다.

이미 과거의 역사로부터 인류는 객관적 지식이 존재하지 않음을 익히 알고 있다.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우리의 일상에 미친 영향은 지식과 사회가 구성된다는 믿음이다. 이는 구성주의 교육이 등장하게 된 지적 토대가 되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인정함으로써 지식 생성과 소통에 무한한 자유를 부여했다.

로버트 단튼이 『초기 정보 사회(an early information society)』에서 언급했듯이 '모든 시대가 정보 시대지만, 각 시대마다 나름의 방식이 존재'했다고 봐야 한다(Burke, P., 2015, 이상원 역, 2017:53).

멀티미디어 시대가 전개되기까지 정보를 옮기고 지식을 생성하는 매개가 된 미디어는 수없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부족본능(내집단에서 작동하는 제한된 감정)을 일깨우고 동일 집단의 우월성을 알리는데 적절히 이용되고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집단 안'에서 비로소 '나'라는 개념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나'를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특성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가상의 '나'는 문화적으로 복제되는 크게 성공한 밈 플렉스다(Schmidt-Salomon, M., 안성철 역, 2022:143~144).

과거의 우리는 언어를 통해 추상적 개념을 학습하고 생각과 지식의 조건을 살폈으며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세계라고 믿어왔다. 인류는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밈을 의식하기 위한 노력에 관여한다.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도덕의 이중성¹³⁾)은 일상에서 소셜 미디어와 알고리즘으로 더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의 앎(knowing)은 오염된 지식과 역정보(disinformation)로 채워지고 있다. 굳이 의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또 다른 이데올로기의 함정(자본과 권력에 의한 오염된 정보)에 쉽게 빠지게 될 것이다.

어렵고 힘든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의 도구로써 의식을 일깨운다. 역사적·문화적 궤도에서의 표상 지식을 몸으로 감각하고 표현하는 무용읽기는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¹⁴⁾를 견인한다. 무용읽기에서의 유효한 도구인 몸은 문화 기억체로 자기 자신을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으며 살아왔던 것들을 기록(기억)하는 도구 중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몸으로 사유하고 표현하는 경험은 자기 몸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며 타인과의 다른 점을 인식하는 주요한 임무를 띤다.

독자적인 예술성을 선보여야 했던 시기에 통용되었던 신체 기능성의 무용학습은 이제 몸으로 사유하는 인식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 이전 시대의 무용 범주에서 벗어나 동시대 무용의 기능은 무용읽기를 통해 공감과 배려, 성찰과 참여, 온정과 관찰, 비판적 사고를 수반하는 학습경험으로 우리의 세계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

¹³⁾Schmidt-Salomon, M.의 용어

¹⁴⁾Robson, D.(2020)는 느낌, 직감을 살피고 그것에 휘둘리기 전에 거기서 생기는 편향을 알아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성찰 능력(reflective competence)을 강조한다. 성찰 능력은 직감과 분석을 통해(동시에 의존하고)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인지에 관한 지적 참여로서 무용지식을 생성하고 공유하는데 있다.

이데올로기에서의 가치관과 도덕성, 윤리성이 바뀌어가는 변화의 시점에 무용이 삶의 일부(환경)으로 받아들여지고(침착함) 무용을 통해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용기)에 대한 성찰로 무용읽기 학습의 접근 시스템은 구축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 체계 안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무용을 통해 소통 미디어로서 지식의 생성과 의미를 감지하는 것이 무용읽기 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무용읽기는 무용이라는 상징물(기호)로 표현된다. 이때의 표현이 읽기(literacy)이다. 실천적 행위로서의 무용 창안은 자기표현 기술임과 동시에 사회적 행동이며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선(윤리적 실천과 참여)함을 의미한다.

더 이상 동시대는 문자와 언어로 텍스트를 읽는(reading)데 의존하지 않는다.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우리가 얻게 된 혜택 중 하나는 무용이 문자와 언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확신이다.

무용읽기는 무용 연구로 출발하지만 이때의 연구는 사회와의 관계에 의해, 관계에서 연구된다. 무용읽기의 학습은 이미 알고 있다고 간주하는 누구나 보고 지나쳐 온 것을 다시금 돌아보는 발견과 성찰로 우리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한다.

오늘날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강조되는 이유에는 인지 활동의 중요성이 자리한다. 수많은 정보에 매몰될 수 있는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인지적 읽기¹⁵⁾가 필요 학습이기 때문이다. 조병영(2022)에 의하면 인터넷 디지털 환경은 인식론적 양면성을 갖추고 있다. 비선형적 구조로서의 상호텍스트성과 불분명한 출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읽었지만 무엇을 읽었는지를 지각하지 못하거나 오염된 정보에 의한 판단을 지식으로 믿으며 지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착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진리 인식을 바탕으로 한 무용읽기는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에서 새로이 생성된 사상이나, 기술, 법률 등이 가진 함의를 파악하여 그것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미래에 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감각 조절 능력을 부여한다”(한혜리, 2013:232).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대응하기보다 그것으로부터 잠시 물러나 제 3자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성찰¹⁶⁾은 과거의 행위를 반추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역사, 문화, 예술 등 인간 행위는 이와 같은 성찰에 의해 형성되었다.

¹⁵⁾조병영(2022)은 의미 구성을 위한 기능과 전략으로서 인지적 읽기를 설명하며 텍스트와 읽기에 관한 점검과 조절을 메타인지적 읽기(metacongnitive reading)로, 그리고 읽기 지식에 관한 성찰로서 인식론적 읽기(epistemic reading)를 제시한다. 이는 3차원의 인지 활동으로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움직임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¹⁶⁾Martela, F.(2021)는 성찰을 통해 “지난 행동을 돌아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하여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의식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에 희망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현실로 만들기 위한 계획과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연 무용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였다면 현대 사회에서 무용은 다양한 목적으로 생활의 질적 향상에 관여하고 있다(한혜리, 2022:10).

문화적 경험과 발달적 차이가 다른 개인에게 읽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길러지는 능력임으로 읽기의 자원(resources)과 환경(environment)은 사회적 기술 습득과 학습에서 무엇보다 요소가 된다. 추상적 사고로써 일반화된 지식보다는 지적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복잡한 동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가 읽기학습의 역할이 되었다. 즉 읽기학습은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기준에 알고 있던 것(믿음)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하고 혼란을 야기할 때 무용읽기는 더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그것을 사유할 수 있는 성찰로 우리의 판단(지식 생성)에 도움을 준다. 역사적·문화적 자료를 탐색(관찰-조사)하고 표현하는 일련의 무용읽기 학습은 변화한 시대를 이해(feeling)하고 사유하며 행동(dancing)하는 비판적 사고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사고¹⁷⁾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그것에 함축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인지적 성찰을 수반한다. 무용읽기 학습은 무용이 사회와 관계 맺는 분야¹⁸⁾를 기준으로 민속, 문화, 예술로의 접근을 내용으로 삼는다. 또한 무용 체험의 빈도를 기준¹⁹⁾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내용 선정은 동시대 읽기교육에서 강조되고 있는 출처 비평이자 비판적 사고²⁰⁾ 개발이며 텍스트 탐구(text inquiry)와 관계된다. 또한 매체가 우리의 인식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관계)을 미치는지 감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타인과 연대(solidarity)하고 소통하며 지적 한계를 인정하고 모호함과 불확실성(uncertainties)을 인내하는 지혜(지적 겸손함)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여러 관점을 이해(공감, 易地思之)하고 표현하는 리터러시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무용읽기 학습은 이와 같은 시대성에서 자기 효능감과 자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자원이자 환경으로 자리한다.

¹⁷⁾Christodoulou, D.(2014)는 배경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형 지식이라고 주장하였다. Wikforss, A.(2020) 또한 비판적 사고를 위해서는 사실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곧 판단의 토대가 되는 배경 지식의 필요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¹⁸⁾한혜리(2013), “무용읽기”, *무용교육론*, 서울: 한학문화, 245p참조.

¹⁹⁾거리에서의 춤, 극장의 무용, 확장된 공간의 공연, 변화된 공간에서의 춤, 매체 무용 등

²⁰⁾Nygren, T. 은 “비판적 시선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IV 결론

인류의 지식과 사회 체제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어왔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아 우리는 다양한 매체로 동시에 여러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소통 능력과 지식 생성 역량을 요구받고 있다. 지식의 오염과 오용의 경각심으로 인해 읽기교육의 중요성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자가 아닌 이미지와 영상 정보를 즐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식 없이 자극에 반응하는 형태로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을 생성하고 축적하는 과정은 의식적인 노력이 따르는 목적 지향적 행위임으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정교한 인지 경험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용읽기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무용학습에서 무용읽기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추상적 사고로써 일반화된 지식보다는 지적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복잡한 동시대에서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가 읽기학습의 역할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무용읽기는 비판적 사고와 성찰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무용학습으로 동시대 읽기교육 방법 중 하나이다.

무용읽기 학습은 단순히 텍스트를 해독(reading)하는 기능을 넘어 역사적·문화적 궤도에서 생산된 학문과 사회 체제의 표상 지식으로 우리가 마주한 세계의 진리를 탐색하는 문제 해결력을 개발한다.

자료를 탐색하고 추론하며 표현하는 무용읽기 학습은 변화한 시대를 이해(feeling)하고 사유하며 행동(dancing)하는 비판적 사고를 동반한다.

무용이 삶의 일부분이자 환경으로 받아들여지고(침착함) 무용을 통해 인류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용기)에 대한 성찰로 무용읽기 학습은 지적 겸손함을 갖도록 한다.

장대익(2022), **공감의 반경**, 서울: 바다출판사.

조병영(2021),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서울: 쌤앤파커스.

Baron, N. B.(2021), *How we read now*, 전병근(역, 2023),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어크로스출판.

Burke, P.(2015), *What is the history of knowledge*, 이상원(역, 2017), **지식은 어떻게 탄생하고 진화하는가**, 서울: 생각의 날개.

David, R.(2019), *The intelligence trap*, 이창신(역, 2020), **지능의 함정**, 경기: 김영사.

Gabriel, M.(2018), *Der sinn des denkens*, 전대호(역, 2021), **생각이란 무엇인가?**, 경기: 열린책들.

Martela, F.(2020), *A wonderful life*, 성원(역, 2021), **무의미한 날들을 위한 철학**, 서울: 어크로스 출판.

Schmidt-Salomon, M., *Jenseite von gut und böse*, 안성철(역, 2022), **위험한 철학 : 도덕없이도 윤리적일 수 있는 이유**, 경기: 유어텍스트.

Wikforss, A.(2020), *Alternative facts*, 박세연(역, 2022), **진실의 조건**, 경기: 푸른 숲.

한혜리(2013), “무용읽기”, **무용교육론**, 서울: 한학문화.

_____(2020), “무용 공유 공간으로서의 디지털 미디어 기능”,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85-98.

_____(2022), “무용 교과교육의 개념과 가치”,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3(4)**, 5-18.